

家庭燃料에 대한 主婦意識實態調査

全國主婦教室中央會

代 替에너지개발과 에너지節約은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점에서 가정 에너지부면에서의 최종관리자인 主婦들의 가정연료에 대한 의식은 큰 관심사가 된다.

정부가 최근 들어 가정용 가스보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가스化時代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가스의 수급 및 가격체제, 안전관리문제, 副販店서비스 문제등 가스연료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문제도 도의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실시한 家庭燃料에 대한 主婦意識實態調査는 여러 가지로 유용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지난 해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主婦 6백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취사용 89%가 가스, 난방용 73%가 연탄

현재 사용중인 연료를 취사용과 난방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여 본 결과, 취사용 연료로 89.08%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용연료로서는 72.56%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취사용연료의 차순위위는 기름으로 6.86%에 지나지 않았고, 연탄이 3.92%에 불과하였고, 전기를 사용하는 응답자는 1.14%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난방의 경우는 이와 달라서 연탄(72.56%)다음으로 기름(26.14%)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프로판가스로 난방을 한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 도시가스의 경우, 0.65%가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전기를 사용하는 비율과 같았다. (표-1참조)

〈표-1〉 현재 사용하는 연료

연료명	구분	취 사 용	난 방 용
연	탄	24(3.92%)	444(72.56%)
기	름	42(6.86%)	160(26.14%)
가	스(프로판)	473(77.30%)	0
도	시 가 스	66(10.78%)	4(0.65%)
전	기	7(1.14%)	4(0.65%)

한 가구에서 2가지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여 용도별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에너지관리 측면이나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직한 연료에 대하여는 취사용으로 92.49%가 가스라고 답하고 있으며, 난방용연료로서는 기름 52.62%, 연탄 36.93%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으며, 가스는 세번째로 8.82%였다.

(표-2참조)

〈표-2〉 바람직한 연료선택 경향

연료명	수 (%)	취 사 용	난 방 용
연	탄	7(1.14%)	226(36.93%)
기	름	17(2.78%)	322(52.62%)
가	스	566(92.49%)	54(8.82%)
전	기	22(3.59%)	10(1.63%)

현행가스요금으로서 난방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스난방」이라는 어휘자체에 대하여 생소함을 느끼고 있다. 가스가

격이 적정선을 유지하게 된다면 취사용연료는 거의 대부분이 가스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난방용도 점차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예도 있었다.

가정에너지 취사에 14.8%, 난방에 83.8%씩

동력자원부가 실시한 '81년도 에너지 센서스 결과 보고에 의하면 '80년도 가구당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1.90TOE(석유환산 TON, 10⁷kcal)로서 이중 전력을 제외한 가정연료의 거의 전량은 취사와 난방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비율은 취사가 14.8% 난방이 83.8%로서 난방부분이 취사 부분의 6배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은 아직까지 가스를 취사에만 사용을 국한시키고, 6배나 되는 난방용에는 신경을 전혀 덜 쓰고 있는 경향이다.

제5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용가스의 보급확대 계획에 대하여 주부들은 잘 알고 있거나 개략적으로 안다고 답한 비율은 81.86%로서 예상보다 기대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정량 미달 의심가도 확인 못해

프로판가스공급 및 사용상의 문제를 알아본 결과 가정에 배달되는 프로판가스에 대하여 항상 정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부는 27.01%인데 비하여, 정량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의 63.68%나 되어 정량거래에 큰 불만과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가스용량의 확인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한다가 13.74%밖에 안되고 확인을 못한다가 86.26%으로 주부들은 손쉬운 계량방법이 없어 배달된 가스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인수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실용적인 계량장치가 제도적으로 실현되기를 대부분이 바라고 있었다.

이는 공급자의 신용도와 관련되는 문제다. 공급자는 배달시 용기의 중량과 회수시 중량을 소

비자와 함께 확인하여 실사용량에 대한 대금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 가스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83.66%의 주부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3%만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받는 주부 29%

가스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응답자는 28.75%이고, 받아본 적이 없거나 거의 안 받는다는 주부가 29.18%가 되며, 나머지는 가끔 받는다고 하는데 가스를 매우 위험한 연료로 생각하고 있음에 반하여 안전수칙에는 상당히 무관심한 실정을 노출시키고 있다.

가스공급인의 의무를 제도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와 교육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는 소매점(부판점)에서 공급되는 바 서비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무난한 편(84.57%)이나 15.43%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원인은 역시 용량부족(43.83%), 배달이 신속하지 못함(24.66%), 가격에 대한 불만(20.55%)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과 용량외에 신속한 배달과 성의있는 서비스가 부판점에 요망된다.

다음으로 가스가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체로 가스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은, 가스는「깨끗하고 간편하면서도 비싸고 위험한 연료」라는 것 이외에 폭넓은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보급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부는 19.22%, 그저 그렇다고 생각한다 60.63%, 낮다고 생각한다 16.83%, 관심없다 3.26%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가스보급율 외국보다 적어

석유·가스 유통협회가 밝힌 '81년도 우리나라 가스보급율은 10.86%로서(전체가구수중 가스사용가구수)'81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636

달러와 같았던 시기의 일본과 비교해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686달러의 1969년도로써 이때의 일본의 가스보급율은 79.59%(日本 LPG總覽)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 비하여 볼 때, 가스 보급율이 매우 낮은 편이나, 응답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동력자원부가 행한 '81에너지 센서스 참고 자료로 게재된 각국의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3>과 같이, 가스사용 비율은 타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상태이다.

82년12월말 현재 국내 프로판가스의 소비자가 가격은 1kg당 818원이며, 타물가와 비교할 때, 다소 싼 편이라고 2.94%가 응답했고, 74.19%가 비싼편, 그저그렇다 17.48%, 모르겠다 5.39%로 현행가격에 대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스 가격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이익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가격결정에 소비자의 이익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부는 3.59%에 지나지 않으나, 81.29%는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스가격 결정시 소비자들의 견해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부가 60.29%에 이르러 소비자 측면의 견해가 반영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

<표-3> 가계부문 에너지 소비량 구성비

국 명	1인당국민소득	석유류	가스류	전력	기	타
일 본 (1979)	4,293\$	29%	41%	28%		1%
영 국 (1976)	3,491\$	10%	42%	20%		28%
프 랑 스 (1979)	(77) 6,304\$	50%	26%	12%		12%
서 독 (1978)	(77) 7,328\$	58%	17%	14%		11%
미 국 (1978)	(77) 7,686\$	23%	49%	22%		6%
한 국 (80.12.81.7)	1,636\$	9.6%	1.1%	8.7%	52.6%석탄류 28.1%신탄	

<資料> 81년도 에너지센서스 결과보고서 (동력자원부 연구기관 동자연구소)

<표-4> LPG 가격비교

가	격	TON당가격	kg당가격	원 / kg
가 스 의 수 입 가 격		225.0\$	168.75원	168원
한 국 도 착 가 격		266.31\$	199.73원	199원
국내소비자가격 (교시가)		818,000원	818원	818원

<資料> 석유협회보 82.2환율 750 : 1로 환산

特消稅 10%를 새로 부과하겠다는 정부방안에 대하여 가스는 대중연료이므로 특별소비세의 부과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부들은 전체의 90.69%에 이르고 있어 현재 상태의 비싼 가격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에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응답자의 80%이상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90%이상이 바람직한 취사용 연료로 가스를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당연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지방의 취사용 가스사용율은 동자부가 실시한 '81에너지 센서스 결과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가스가격의 인하('82.3.11)와 가정용가스화 계획의 적극 추진으로 그간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스가격이 적정선에 이를 때 가정에너지 부분에서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전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스유통 및 판매에 따른 공정거래
- ② 가스가격 문책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해소요망
- ③ 프로판가스 정량거래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계량장치의 실현.
- ④ 가스시설과 사용상의 안전수칙준수를 위한 가스공급자의 의무를 제도적으로 강요시키고 소비자에게 홍보와 교육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가스는 현대의 바쁜 생활에서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깨끗하며 공해없는 연료로써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응답자 가정의 도심권의 교육수준, 경제력이 비교적 높은 계층이라는 점과 아직 일반 서민대중의 연료로 보급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스연료의 선호에 앞서 가스유통에 따른 가격문제, 제량문제 그리고 가스시설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준수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해소를 위한 대책이 하루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月刊 消費者 3月号>